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막내려

시상과 감사, 나눔과 예술이 어우러진 대화합의 축제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막을 내렸다. 광주시와 광산구, 재외동포청, 적십자광주전남지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고려인동포와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고려인 전통음식 나눔, 중앙아시아 공연단의 무용과 음악, 시상 및 감사장 수여, 장학금 전달, 나눔 행사 등이 어우러진 감동의 축제로 펼쳐졌다.

행사는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시작됐다. 이어 고려인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하며 민족의 정서를 울렸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고려인민속공연단은 화려한 전통무용과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중앙아시아의 강렬한 색채와 정서가 어우러진 공연은 1937년 스탈린 강제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고려인의 정신과 예술혼을 되살리며 큰 감동을 전했다.

행사는 김경림 고려인문화관 해설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식 선언과 내빈 소개에 이어, 마을 발전과 공

동체 화합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다양한 상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광주광역시장은 문빅토르(미술관장), 이밀음(GBS고려방송 편집국장), 광산구청장상은 최비탈리, 유가이발레르, 장인나, 국회의원상은 박나탈리아, 리조야, 리리자 이어 공동체 발전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인사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이 전달됐다.

표창장은 조정희(고려인어린이합창단장), 이지현(고려인마을지역아동센터장), 고가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감사장은 송창영(광주대 교수), 기형근(고려인한방진료소), 윤혜영(광산구의원), 오형현(산부인과 원장), 명재일(내과 원장)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노력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성군 복내면민회(회장 윤정관)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수혜자는 프로첸코 티무르, 김에두아르드, 김 아르투르, 김키릴, 젠 비올레타, 권키릴, 문발레리아, 헤가이키라 등 8명으로, 고려인 차세대의 꿈과 미래

를 응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사회의 나눔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쌀 10kg 235포대를, ㈜한별투어 최창인 대표는 밀가루와 여행용 가방, 캐리어 등을 후원했다. 이러한 따뜻한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연대의 상징이 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전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기념사에서 "고려인의 날은 과거의 고난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축제"라며 "고려인의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광주 고려인마을은 세계 속의 고려인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행사 후에는 마을 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아리랑가무단, 노인들볼센터, 지역아동센터, 고려인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이 지난 19일(토) 흥법도공원에서 개최한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현권 목사 제5회 고영근 목민애민상 수상

5.18진상규명 등 인권과 평화 실천가·길위의 목사



장현권 목사가 제5회 고영근 목민애민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고성희 이사장, 장현일 원장, 장현권 목사, 정성진 목사, 최상도 사무총장.

'길 위의 목사'인 장현권 목사(광주 서정교회)가 '제5회 고영근 목민애민상'을 수상했다. 목민상은 한반도 민중의 척박한 삶과 함께하고자 했던 목민 고영근 목사의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을 기리며, 오늘의 현장에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고영근 목민애민상은 군사독재 시절 수차례의 연행과 투옥을 감수하면서도 민중과 민주화를 위한 예언자적 사역을 펼친 고영근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고영근목민연구소(이사장 고성희)

가 주관하고 정성진 목사(크로스트 대표)가 후원했다. 올해 수상자인 장현권 목사는 오랜 세월 동안 5·18 진상규명 활동, 세월호 유족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지난 45년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목사는 수상 소감에서 "오직 나라와 겨레를 내 몸처럼 아끼지 않고 살았던 고 영근 목사님의 삶을 이어받게 되는 목민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큰 영예이며 카이로 스와 같은 소중한 상"이라며 "민주주의 퇴행인 계엄과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현 시국에, 예언자적인 삶으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장현권 목사는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장, 사회문제대책위원장, 광

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광주 전남 민주화 운동 동지회 상임 고문, 광주노회 인권위원장, 광주 광산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장목사는 인권상(한국인권교육원, 2015년), 오월어머니상(2018년), 한민족문제제전 통일부 장관상(2020년),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인상(2022년)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돌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목소리》, 《발로 쓰는 편지》(시가 말씀을 만나다), 《시가 영화를 만나다》,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과 천개의 바람이 된 시집 《차마 부를 수 없는 꽃》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서울가는 예레미야》 등 국민일보 신춘문예 당선 신양시(2022년)가 있다.

이날 정병준 이사(목민연구소 이사, 서울장신대 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최상도 목사(목민연구소장,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와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고영근 목사가 생전에 추구했던 참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목회자의 예언자적 역할을 오늘의 시대에 비추 되새기는 자리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교육칼럼

박 주 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용연학교 초대 교장선생님을 모신 이야기이다.

교육감께서는 전직 시장을 교장선생님으로 초빙한다고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반대했다. 교육감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교육감님, 물론 전직 시장님도 훌륭한 분입니다만 용연학교 설립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교육감께서는 시교육청에서 지원도 받고하니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처음 용연학교를 설립하자고 할 때는 반대했던 분이다.

며칠을 찾아서 설득하자 "그럼 누구를 추천할 거냐."고 물었다.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용연학교 정신에

나는 다시 정중히 말씀드렸다.

"교육감님께서 전직 시장을 추천해주셨습니까만 용연학교의 설립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여러 선생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철구 용연학교 초대 교장선생님이시다.

부임하신 첫날부터 학교 교문에 나오셔서 학생들 등교맞이를 했다. 용연학교 학생들은 9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이 몇 명 안 됐다. 보통 10시, 11시에 등교를 했다. 12시에 등교한 학생들도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등교한 학생들을 일일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사랑을 전했다. 12시 무렵 등교한 학생도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안아주면서 "아침 밥 아직 안 먹었지?" 바로 식당으로

교장선생님 모시기

맞는 분을 교장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수소문 끝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찾았다.

광주과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분이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학생들 책상을 일일이 닦아놓고 학생들을 기다렸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무척 존경했다. 이 선생님은 그 당시 교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정년하신 분이다.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은사님이기도 했다.

나는 찾아뵙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용연학교는 100명의 선생님들이 심시일반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전국 최초의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입니다. 선생님께서 용연의 설립 정신을 살려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초대 교장선생님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훌륭한 정신이 깃든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겠냐고 의아한 표정이셨다.

데리고 가서 식탁 앞에 앉아서 쟁겨주었다.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다. 교장선생님보다는 이웃집 편안한 아저씨 느낌이다. 하교할 때도 학생들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오늘 고생했다. 또 내일 만나자고 했다. 용연학교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교장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오셨다가 오후에는 재판장으로 가는 날이 많았다. 학생들의 재판이 오전이 있는 날은 바로 법정으로 출근하셨다. 법정에 나가서 학생들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셨다.

지금은 투병생활을 하고 계신다. 가끔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마음에 새겨려 말씀을 해주신다.

"왜 살아야 하나고,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고, 선생님의 보람은 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내 마음의 표상이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불요양병원

백남요양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과목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